

## 언론동향(9. 11.)

### 《언론보도 목차》

1. 파주시, DMZ 평화관광 재개준비 (경기도민일보) ..... 2
2. 미리보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랜선 즐거움도 가득 (경기일보) ..... 3
3. 강경화,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지 요청' (연합뉴스) ..... 4
4. 진보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news1) ..... 5

# 경기도민일보

## 파주시, DMZ 평화관광 재개준비

관할부대 출입절차 협의 등 완료

파주시는 관계부처의 ASF 방역실태 점검과 관할부대 출입절차 협의를 완료하고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막고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재개 시기는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결정할 계획이다.

파주 DMZ 평화관광은 민통선지역 내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2일부터 현재까지 11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광이 중단된 직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ASF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해 왔다.

더불어 야생멧돼지의 관광지 유입을 막기 위해 민통선지역 1번 국도를 따라 3.2km에 달하는 차단울타리도 설치했다.

또한 도로 주요 지점과 관광지에 차량소독시설 12개소, 관광객이 방문하는 모든 지점에 방역매트와 대인소독시설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ASF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에는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3개 시·군이 임진각에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DMZ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파주는 대한민국 DMZ 평화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다. 연간 6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파주 DMZ를 보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곳으로 ASF 통제가 가능하고 관광재개가 가능한 현 상황이 되기까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

시는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ASF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입장객수 축소 및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관광객 밀집도를 완화하고 관광지점별로 열 체크와 대인소독장비를 설치해 2~3중의 소독을 거쳐야만 관광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접촉이 많은 시설의 소독을 위해 30여명의 방역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ASF 예방을 위해 양돈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DMZ 평화관광 중단으로 장단과 문산지역의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즉시 관광을 재개해 장단과 문산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관광객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파주 DMZ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경기일보

세계인의 시선, 미리보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랜선 즐거움도 가득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가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던진다. 코로나19로 시네 라이브 페스티벌 등 부대 행사는 취소됐으나, 랜선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티켓 오픈은 지난 8일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 주요 경쟁작품 등을 통해 영화제를 미리 살펴봤다.

## ■개막작 <학교 가는 길>,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개막식은 오는 17일 오후 7시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배우 성훈과 아나운서 임현주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날치&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축하 영상을 포함한 개막식은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한다.

개막작품은 김정인 감독의 <학교 가는 길(2020)>이다.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3년 말부터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한 장애인 학부모들의 바람은 국립 한방병원 유치를 원하는 주민 반대에 번번이 막힌다. 수년간 이어진 첨예한 논란은 2017년 토론회 현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진한 감동으로 전하는 작품이다.

## ■11개의 경쟁 작품...세계의 눈으로 바라본 현재

경쟁부문에는 예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신작을 소개한다. 올해는 아르메니아, 이란, 중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일본 등의 국가 11개의 작품이 올랐다.

제인 진 카이젠 감독의 <이별의 공동체>는 한국의 바리공주 설화를 통해 경계를 사유한다. 영화의 세계에선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고 그 경계는 무속적으로 흐릿해지며 상호 공명한다. 제주도, DMZ, 북한, 일본, 카자흐스탄 등에서 촬영한 영화로, 한국 전쟁과 분단을 여성주의의 시선으로, 디아스포라적이며 다의적으로 다룬다.

알릭스 아인 아림팍 감독의 <아수왕>은 마닐라를 배경으로 한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은 2년간의 기록이다.

## ■내 방에서 즐기는 랜선영화관 '다락(Docu&樂)'

온라인으로 즐기는 프로그램도 있다. 'DMZ랜선영화관, 다락(Docu&樂)'은 다큐멘터리를 다양한 콘텐츠와 엮어 소개한다. 음악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작품을 연계 공연과 함께 선보인다.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 X 최고은'은 고국을 떠나 떠나면 타지에 머물던 고려인들에게 고향을 선물했던 고려극장의 두 디바, 방 타마라와 이함덕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이에 디아스포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영화 속 음악을 편곡해 재현한다.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X 김지희'는 기타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풋내기 기타리스트 김지희가 오래 간직했던 그의 소망을 다큐멘터리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를 통해 알린다. 온라인 상영과 함께 김지희의 자작곡을 포함한 3곡의 연주를 새롭게 선보인다. '<위켄즈> X G\_Voice'는 게이코러스 'G\_Voice' 10주년 기념 공연 준비 과정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고 뮤직비디오를 소개한다.

##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 강경화,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지 요청 화상 개최 EAS외교장관회의 참석... "남중국해 항행자유 보장" 촉구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9.10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18개국이 참여했다.

강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 상황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의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주민 생활 증진,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도 설명했다.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2020.9.10 [외교부 제공]

강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해당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0 [외교부 제공]

각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아세안+3(한중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공조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gogo21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10 08:52 송고

사회 > 사회일반

## 진보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파탄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위기감을 고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살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